

# 雙梅堂 李詹의 시세계

李 鍾 默 \*

## 1. 서론

『太宗實錄』(10년 4월 8일)에 실린 司諫院에서 올린 글에 따르면 “權近과 李詹이 서로 계승하여 兼大司成이 되어 인재를 교양하니 인재가 무리로 배출되었다”고 하여, 李詹을 權近과 함께 조선 초기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하고 있다. 또 『東人詩話』에는 金守溫이 李穡보다 李詹의 시가 더 낫다고까지 한 기록이 보인다. 許筠 역시 『惺叟詩話』에서 “조선 초기 郊隱 鄭以吾와 雙梅堂 李詹의 시가 가장 뛰어나다(國初之業鄭隱李雙梅詩最善)”고 하였고, 南龍翼도 『壺谷詩話』에서 “국초에는 貞齋 朴宜中과 雙梅堂 李詹의 시가 최고다(國初朴貞齋李雙梅之詩最高)”라 하였다.

이처럼 雙梅堂 李詹(1345~1405)은 조선 초기 대표적인 학자요 시인이지만 불행히 그의 문집이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애에 대해서도 약간의 혼란이 있다. 이침의 본관은 新平인데, 『高麗史』에 실린 이침의 열전, 그 밖에 『乙卯黨議』 등에 洪州로 되어 있다. 신평이 고려시대 홍주(오늘날의 홍성)의 속현이었으므로 신평과 홍주를 혼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650년 신평 이씨 족보가 간행된 바 있고 홍천 이씨는 별파로 존재하므로 신평 이씨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sup>1)</sup> 字도 『태종실록』에는 仲叔으로 되어 있지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에 대해서는 『국역쌍매당문집』(민창문화사, 1999)에 붙인 정구복 교수의 해제에서 밝힌 바 있다. 본고는 이 자료에 영인된 것을 이용하고 권수를 밝힌다. 김동주가 이침의 시문을 번역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크게 참조하였다.

만 고려시대 자료에는 少叔으로 되어 있으므로 少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침의 문집 『雙梅堂篋藏集』은 淸道郡事 兼勸農兵馬團練使로 있던 그의 아들 이소축이 태종 연간에 편집하여 간행한 것인데, 『攷事撮要』(1576년 간본)에 실린 淸도의 册版目錄에 보이므로, 이소축이 淸도에서 간행한 것이라 하겠다. 篋藏은 대나무 상자에 숨긴다는 뜻으로, 藏篋이라고도 한다. 고물을 아무렇게나 담아 숨겨둔다는 겸손의 뜻을 담은 것이지만, 이 이름의 뜻이었는지 지금 전하는 것은 연보와 필사본 권1~2, 목판본 권22~25뿐이다. 李仁榮의 『淸芬室書目』에는 당시까지 25권 중 연보와 권1~3이 전한다고 하였으므로, 권1~3까지의 목판도 근세까지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22~25에 이르는 2책은 태종 연간의 초간본이다. 권1~2의 필사본은 초간본을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表譜 형식의 연보가 함께 필사되어 권두에 실려 있는데, 조선초기까지의 연보는 후기와는 달리 대부분 문집의 권수에 수록되고 연보 역시 표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sup>2)</sup>

문집의 부분적인 일실로 인하여 그의 한시 역시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필사본 권두의 목록에 의하면, 원래의 『쌍매당협장집』에는 권1부터 권14까지 2,670여 수의 시가 수록되었다고 하는데, 권1과 2에 수록된 것은 360여 수에 불과하다. 조선 초기 간행된 『東文選』에 27수, 『東國輿地勝覽』에 45수가 실려 있는데, 이 중 문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제법 있으며 그밖에 『靑丘風雅』, 『國朝詩刪』 등에도 문집에 실리지 않은 작품이 있으므로, 대략 400여 수가 현전한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옛사람들은 작품을 많이 남긴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고기 한 점을 맛보면 한 술의 국맛을 다 안다고 하였으니, 아쉽지만 지금 전하는 작품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시인이었든가를 짐작할 수 있다. 金宗直의 『청구풍

2) 줄고, 「한국 문인 연보 연구 - 조선 전기 인물 연보를 중심으로」(『장서각』 5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에서 여말선초 연보의 형식과 문집의 형태를 살핀 바 있다.

3) 이들 자료를 묶어 『국역쌍매당선생문집』으로 펴내어 이침에 대한 현전하는 자료는 웬만큼 모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발굴을 기다리는 이침의 작품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의 말미에 언급한 『大東詩林』에 실려 있는 작품이 그러한 예다.

아』에는 오언절구 1수, 칠언절구 4수, 오언율시 2수, 칠언율시 1수, 칠언고시 1수를 뽑았으며, 『국조시산』에는 칠언절구 4수, 오언율시 2수, 칠언율시 1수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작품의 수를 비교해보아도 鄭道傳, 權近 등의 대가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 이첨과 나란히 조선초기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되었던 朴宜仲의 시도 오언율시 2수, 칠언율시 1수, 칠언절구 1수에 불과하니, 조선초기의 한시사에서 이첨의 존재는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4)</sup>

## 2. 쌍매당 이첨의 삶과 詩情

이첨은 1365년 개성으로 올라가 韓葳의 榜으로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368년 李穡의 방으로 文科에서 장원하였다. 1367년 8월 개성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올라가면서 지은 <정미년 8월 서울로 가다가 지장사 북쪽 마을에서 말을 쉬면서(丁未八月將赴京師歇馬地藏寺北里)(권1)에서 “서쪽으로 돌아갈 때 좋은 소식 있었으면(西歸有好音).”이라 염원한 대로 장원급제한 것이다. 이첨은 이때의 환희를 이렇게 노래하였다.

서울로 공부 갔던 사람 금의환향하니  
연안 땅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고을의 누각에서 사흘 취했다 깨니  
대숲 너머 해당화가 절로 피어 있네.

京國遊人衣錦來 五原風景正佳哉  
郡樓三日醒還醉 隔竹海棠花自開

이첨, <급제한 후 연안부에서 놀면서(及第後遊延安府)>(『쌍매당협장집』 권1)

五原은 연안의 옛이름인데 아마 그의 부친이 이곳에서 벼슬을 한 듯하다. 과거에 급제하고 부친이 있던 연안에 三日遊街를 온 것으로 추정된다. 錦衣還鄉하게 된 기쁨으로 온 천하가 다 아름답게 보인다. 삼일유가를 마치고

4) 이첨의 假傳 (楮生傳)이 일찍 주목을 받았지만 한시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높지 못하여, 김동욱, 「쌍매당 이첨의 삶과 문학」(『반교어문연구』 3집, 1991) ; 이견영, 「쌍매당 이첨의 시문학 연구」(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 강석중, 「쌍매당 이첨의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 2, 1996) 등만 확인된다.

나니 대숲 너머 붉게 해당화가 피었던 것도 환희의 발현이다. 자신의 기쁨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산뜻한 해당화 꽃떨기로 대신하여 시의 풍격을 높였다.

이침은 藝文檢閱로 벼슬을 시작하여, 藝文館에서 文翰의 직임을 맡아하다가 1371년 무렵 폼적되어 知通事 兼農防禦使로 通州(通川)로 나갔다.<sup>5)</sup> 이침은 통주의 고을원으로 있으면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지었다. 게다가 이때 金九容이 廉察使로 강원도를 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9월 16일 三日浦에서 한바탕 시회를 벌였다. 아래에 김구용의 시와 그의 대한 이침의 답시를 보인다.

서른여섯 봉우리에 가을비가 걷히자  
온통 신경이 되어 지극히 맑아졌네.  
석양이라도 가벼이 배를 돌리지 못하리라,  
단풍 언덕 소나무 물가에서 밝은 달을 기다려야 하리니.  
三十六峯秋雨晴 一區仙境十分清  
日斜未用輕回棹 楓岸松汀待月明

수심정은 고요하여 속세의 뜻 사라지니  
구름 속에 신선을 부를 것만 같아라.  
사또의 마음은 달빛처럼 맑기에  
종일 난간에 기대어 돌아갈 것 잊노라.  
水心亭靜世情微 彷彿雲間喚羽衣  
賴有使君心似月 倚欄終日憶忘歸

김구용, 〈9월 기망에 통주의 이사또와 삼일포에 배를 띄웠다. 마침 비가 그치고 산빛이 영롱하며 물빛이 고와서 돌아보니 사람 사는 땅과 같지 않았다. 술이 오르기에 사선정 기둥 위에 시를 쓴다(九月旣望與通州李使君泛舟遊於三日浦時方雨晴山色蔥籠湖光激灩顧非人世也酒酣題四仙亭柱上)〉(『척약재집』 권6)

낮은 호수 드넓은데 푸른 물결 잔잔하여  
깊은 가을 즐겁게 옷을 물들여 보리라.  
정자의 네 신선도 슬피 바라보리니  
밝은 달빛 가벼운 배에 꽃을 싣고 가세나.

5) 이하 생애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조선왕조실록』(CD-Rom)을 이용하였다. 통주 수령을 지낸 사실은 〈祭亡婦文〉(『국역쌍매당선생문집』 303면)에 보인다.

平湖萬頃綠波微 試向深秋好染衣  
亭上四仙應悵望 月明輕棹載花歸

산빛과 물빛이 통쾌하게 깨끗하니  
온통 가을하늘도 마음껏 맑구나.  
다시 고운 사람과 이곳에서 노니  
빼어난 황국화가 넓은 호수에 피었네.

山光水色快新晴 一段秋標滿意清  
更與玉人遊此地 絕勝黃菊遶湖明

이침, <중양절 후에 안렴사 김공과 더불어 삼일포에 배를 띄우고(重九後與廉使金公泛舟遊於三日浦)> (『쌍매당협장집』 권1)

김구용은 고려 말의 시단을 唐風으로 빛낸 인물이다. 명성에 걸맞게 맑고 아름다운 정취를 이 작품에서 드러내었다. 이에 답한 이침의 시는 맑으면서도 곱다. 강물과 가을 하늘의 푸른빛으로 옷을 물들이겠다고 한 것이나, 배에 꽃을 싣고 돌아가겠다는 데서 流麗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맑은 풍치까지 더하였다. 晚唐의 시인 杜牧이 <早秋>에서 “가랑비가 허공을 씻으니, 가을 하늘이 마음을 놀래킬 정도로 산뜻하다(疎雨洗空曠, 秋標驚意新).”라 한 뜻을 換骨奪胎하였다. 국화의 노란빛과 삼일포의 푸른빛이 시의 뜻을 더욱 곱게 하고 있다.

이침은 1374년 左正言으로 조정으로 들어와 이듬해인 1375년 右獻納이 되었다가 左獻納으로 옮겼다. 좌헌납으로 있을 때 이침은 全伯英과 함께 李仁任의 주살을 청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침은 10여 년간 유배지 河東에서 살게 되었다. 하동에서 살던 집은 지리산 서남쪽 모퉁이에 있었고, 그 이름을 訥軒이라 하였다. 말이 화를 불렀기에 입조심을 하겠다는 뜻으로 <訥軒銘>을 지어 붙이고 살았다.<sup>6)</sup> 이침은 하동에서 2년이 지난 뒤 지은 <단오날 통판사도께 부치다(端午日寄通判明府)> (『동문선』 권5)에서 “향수는 각서를 먹

6) 이보다 앞서 이침은 헌납으로 있을 때 金海 燕子樓에 들러 매화를 심은 적이 있다. 인구에 널리 회자된 鄭夢周의 <寄李獻納詹按行時金海燕子樓前手種梅花故云> “연자루 앞에 제비는 돌아오는데, 젊은이 한번 가고 돌아오지 않았지. 당시에 직접 심은 매화나무는 봄바람에 그 몇 번이나 피어났던가?(燕子樓前燕子回, 郎君一去不重來. 當時手種梅花樹, 爲問春風幾度開.)” (『圃隱集』 권5)가 이때의 작품이다.

자 길어지는데, 세상사는 맛은 창포처럼 쓰다(鄉愁角黍長, 世味菖蒲苦)”고 하였다. 다시 1년이 지난 후 도성을 그리워하여 이렇게 시를 지었다.

지리산 높고 남해 바다 깊은데  
 온통 가득한 장기에 대낮도 침침하다.  
 쫓겨난 나그네 3년간 괴롭게 붙들려 있으니  
 돌아갈 마음에 봄 시름 이를 어찌랴.  
 편지를 써 미인에게 보내고 싶지만  
 기러기 오지 않고 잉어도 뵈지 않네.  
 산은 더 높고 물은 더욱 깊은데  
 하늘가 땅끝이라 감당치 못하겠네.  
 하루는 그리운 임 꿈에서 만났더니  
 임께서 나에게 황금 한 쌍 주시네.  
 황금이 중하라 임의 뜻이 중하리니  
 꿈 깨자 황금도 임도 사라져버렸네.  
 頭流山高南海深 瘴煙四塞清晝陰  
 三年逐客苦留滯 懷歸更奈傷春心  
 欲修尺書寄美人 塞雁不征河鯉沈  
 山更高兮水更深 天涯地角力難任  
 相思一夜夢中見 美人遺我雙黃金  
 不重黃金重人意 覺來金與人難尋  
 이침, 〈그리운 임(有所思)〉(『동문선』 권8)

이 작품의 제작 연도와 배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리산과 남해를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하동에 유배되어 있을 때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유배지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임금이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다. 이침이 유배지에서 지은 시가 여러 편 전하는데, 〈한유와 유충원의 탄식(韓柳歎)〉(『동문선』 권8)에서는 潮州와 柳州로 유배된 韓愈와 柳宗元에 자신을 비하면서 오래지 않아 남방의 유배에서 풀릴 것이라는 바램을 적기도 하였다.<sup>7)</sup>

이침은 1377년 잠시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얼마 후 다시 하동의 유배지로 되돌아간 듯하다. 그러다가 1381년 유배에서 풀려났고, 다시 3년이 지난

7) 이 시는 權龜의 『海東雜錄』(권3)에도 실려 있는 이침의 대표작이다.

1384년 왕의 부름을 받아 개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무렵 鄭道傳은 李成桂의 막료가 되어 咸興에 있다가 조정으로 복귀해 있었다. 이에 이첨은 이렇게 시를 지어 정도전에게 편지 대신 보내었다.

바닷가에서 3년을 나그네로 살다가  
 신유년에 사온을 입어 돌아왔소.  
 육을 본 물고기는 아직도 어릿어릿한데  
 놀란 새는 그저 멍하기만 하오이다.  
 군신이 만날 것을 멀리서 그려보지만  
 몸가짐은 튀지 않도록 조심하리다.  
 부끄러움 잊고서 삼가 글을 올리지만  
 대롱으로 표범을 보듯 못났소이다.

鯨海三年客 金鷄特賜環

困魚猶罔圉 驚鳥更關關

寄想雲龍際 持身木雁間

貢文如獻豕 豹得管中班

이첨, <부름을 받아 서울에 이르러 삼봉 선생에게 삼가 글을 올리다(被召至京奉簡三峯先生)> 『쌍매당협장집』 권1)

좌천남으로 출세길을 달리다 한순간에 유배되어 10년 만에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 회포가 남달랐을 것이다. 강직함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날렸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모나지 않게 처신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러나 이첨은 개성에서 살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위의 시에 이어지는 두 번째 작품에서 “집터는 3畝만 있으면 되니, 논밭을 많이 바랄 리 있겠소(宅只求三畝, 田何望一成).”라 하고, 四顧無親한 자신은 믿을 사람이 정도전밖에 없으니, 약간의 집터와 논밭을 구해줄 것을 청한 것이다.

이첨은 1384년 試典校副丞으로 복귀하였고 이 때부터 승승장구하여 1388년에는 藝文館 應教, 成均館 直講, 門下舍人, 進賢館 直提學, 成均館 大司成, 寶文閣 直提學 등 청직을 두루 거쳐 1390년 공조판서가 되었고, 이어 예조판서, 知兵曹事 등 요직을 맡았다. 그러던 중 혁명을 만났다. 『태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1392년 7월 28일 태조의 즉위 교서에 따르면, 이색 등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이첨에게 곤장 70대를 때린 뒤 직첩을 빼앗고 유

배행에 처하였는데, 이렇게 공작을 한 사람은 바로 같은 이색의 문하인 정도전이였다. 의지하고자 한 동문의 벗이 이렇게 이침을 내친 것이다.

이침은 충청도 結城으로 유배를 떠났다. 잠시 光州로 옮겨 살게 되었는데, 그 인근인 彰平(昌平)에는 누님이 살고 있었다. 이침은 열세 살에 부친을 여의고 누님과 함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 후 누님이 靈光으로 시집가서 살게 되자, 이침은 1364년, 1372년, 1377년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님을 만나러 가곤 하였다. 누님이 다시 滄平으로 이사를 갔는데, 1384년 이침은 다시 滄平으로 가서 누님을 만났던 적이 있다. 광주로 물러난 이침은 가까운 滄平의 누님에게 식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sup>8)</sup>

이침은 그 해 겨울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393년 왕씨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그에 연루되어 滄浦(馬山)로 다시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침은 유배지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대자연 속에 호쾌한 풍류를 과시하였다.

천기와 인사가 다 어그러졌건만  
성곽은 옛 모습 그대로구나.  
가는 대나무 다시 자라 새 순이 돌는데  
시든 꽃은 새로 가지에 피어나지 못했네.  
한밤의 강호 외로운 배에서 꾸는 꿈  
막부 10년 생활에 남은 것은 천 수의 시.  
이 날에 남루의 풍경이 좋은데  
대장군은 어디에서 수레를 멈추셨나.  
天機人事兩參差 城郭依然似舊時  
細竹更長新出筍 殘花還有未開枝  
江湖半夜孤舟夢 幕府十年千首詩  
此日南樓風景好 元戎何處駐旌旗  
이침, <다시 합포에서 노닐면서(重遊合浦)>〔동문선〕 권17)

가는 대나무 죽순이 곱게 나오고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꽃나무를 말한 2연의 시정이 곱다. 사물은 다시 성시를 맞았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한 처지를 은근하게 투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어 변방에 떠도는 강개한 정을 말하

8) 이침, <祭亡姉文>〔국역쌍매당선생문집〕 304면).

면서도 술어를 두지 않아 함축의 맛을 더하고 있다. 이 시는 포은이 <정주의 중앙절 한재상의 명에 따라 짓는다(定州重九韓相命賦)>(『포은집』 권2)라 한 시와 유사하다. 정몽주는 이 시의 3연과 4연에서 “백 년 전장의 흥하고 망하는 일, 만 리에 원정 온 사내의 강개한 정. 술자리 마치고 원수의 부축을 받아 말에 오르노라니 나지막한 산 비긴 햇살이 붉은 깃발을 비춘다(百年戰國興亡事, 萬里征夫慷慨情. 酒罷元戎扶上馬, 淺山斜日照紅旌).” 하였는데, 이침은 자신을 알아주는 장수가 없으니 더욱 외롭다고 하였다.

이침은 3월에 유배를 갔다가 10월에 돌아왔다. 금고가 풀리고 직첩을 돌려받았지만, 개성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였다. 그 후 1396년 봄 유배에서 풀려 개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 묵고 있을 때 다시 그곳에 머물라는 명이 떨어졌다. 이에 이침은 瑞原郡(坡州) 서쪽 長浦口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安子玉이라는 사람과 이웃하여 살게 되었다. 이침은 이때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옛친구를 좋은 산수 사이에서 만난 것이 기뻐, 서로 왕래하는데 사흘이 멀다 하였고, 만나기만 하면 밤새도록 시를 짓는데, 붓과 먹 옆에 두고 글이 되는 대로 즉석에서 기록하였다. 어떤 때는 사람을 시켜 왕래하게 하여 서로 화답하였는데 종이가 꺼멓게 되고 먹이 뿌옇게 되어도 그만둘 줄 몰랐다. 모두 古律 몇 편이다. 이것을 합하여 책 한 권을 만들었으니, 대개 들에서 보는 정과 강에서 노니는 흥을 눈에 들어오는 대로 써놓은 것이요, 한 번도 글귀를 잘 만들어 보려고 애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산만하게 되었다. 자옥의 성격이 순수하고 검소하며 經史만을 연구하고 시 짓기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시 짓기를 몹시 좋아하여 나로서는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

이침, <어초창화의 서문(漁樵唱和序)>(『국역쌍매당문집』 455-456면)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책이 『漁樵唱和』다. 이침은 이어지는 글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는 것은 한가한 사람의 일이다. 어진 사람들 중에 예전에 여기 에다 핑계를 대고 숨어서 산 이가 있었다. 게다가 나와 자네는 실제로 강 언덕에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고, 이 책 가운데 그 일을 읊은 것이 많으니, 어찌 이것으로 책 이름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침은 이듬해 1398년 7월이 되어서야 다시 개성으로 올라가 吏曹典書의 벼슬을 맡을 수 있었다. 이후 中樞院學士, 集賢殿 提調官, 同知經筵事, 簽書 中樞院事, 簽書三軍府事 등으로 있으면서 『論語』, 『通鑑綱目』, 『大學衍義』 등을 경연에서 강의하였다. 특히 정종 때에는 鄭蕓가 杜詩 3백 首를 抄出한 것을 經筵에서 보도록 건의한 것으로 보아 杜詩에 상당한 식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1400년 兼大司成으로 있다가 簽書義興三軍府事로 자리를 옮긴 이침은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하는 것을 중국에 알리러 가는 啓稟使로 선발되었다. 이때의 시문이 가장 풍성하게 남아 있다. 『쌍매당첩장집』 권2의 「觀光錄」이 바로 그것이다. ‘관광’이라는 말은 “나라의 광휘를 본다(觀國之光)”는 말로, 특히 제후국의 지위에 있던 조선에서 황제국의 빛나는 문물을 살핀다는 뜻으로 쓰인다. 조선 초기 문인들의 글에 보이는 ‘관광’이라는 말은 대체로 이와 같은 뜻이다. 여기에 그의 대표작이 상당수 있다.

중국에 다녀온 이침은 이후 태종의 신임을 얻어 河崙, 權近 등과 관제를 정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1402년에는 同知貢舉로 知貢舉 權近과 함께 관리를 선발하는 일도 하였다. 권근, 하륜 등과 『三國史』를 수찬한 것도 그 즈음의 일이다. 1403년 賀登極副使로 다시 중국에 다녀왔고, 司憲府大司憲을 겸하였다. 하륜, 권근과 함께 『東國史略』을 편찬하여 올렸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藝文館 大提學에 올랐다.

그러나 1393년에 있었던 왕씨의 반란과 관련된 자신의 기록을 없앴다는 죄목으로 노년의 나이에 파주의 禿山으로 유배되었다. 이때 그의 집 이름을 潮信堂이라 하였다. 조선당은 여러 산골짜기 물이 望山을 끼고 합류하였다가 서쪽으로 꺾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형상이 활을 당겼다가 놓은 듯하였다. 몇 리를 더 가면 강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조수가 들고 나가는 때를 살폈다. 그래서 자신의 집 이름을 조선당이라 한 것이다. 이때

9) 이 무렵 이침은 한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시를 수창하였다. 左侍中으로 있던 趙浚과 친하게 지냈는데, 특히 1399년 삼짓날에는 한양에서 松都로 임금의 수레를 호종하여 함께 갔는데 長湍에 유숙하면서 시를 지은 바 있다. 조준, 〈己卯三月十三日自新都駕幸松都宿長湍次李學士詹詩韻二首〉(『松堂集』 권6).

지은 글이 〈조신당기(潮信堂記)〉(『국역쌍매당집』 444~446면)다.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전하는 다음 작품이 이때의 회포를 적은 시다.

여러 번 임진 나루를 건너서  
 우리 집을 물 가까이 옮겼다네.  
 모래톱은 먼 강안으로 이어지는데  
 단풍잎은 맑은 물로 떨어지누나.  
 사람은 동서로 떠돌아다니는데  
 물결은 열 두 때를 맞추는구나.  
 맑은 달빛에 만물이 숨을 죽이니  
 정자에서 홀로 시를 읊조리노라.  
 屢渡臨津渡 吾家近水移  
 沙痕連遠岸 楓葉下清漪  
 人走東西路 潮生十二時  
 月明群動息 亭長獨吟詩  
 이침, 〈임진정에서(臨津亭)〉(『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비뚤비뚤한 모래톱이 강언덕에 이어진 맑은 풍광과 붉은 단풍잎이 맑은 물로 떨어지는 고운 모습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침의 시가 고음과 맑음을 지향했음을 이 시에서 읽을 수 있다. 이침은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파주의 별서에서 이렇게 맑게 살았다. 얼마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있다가 이듬해인 1405년 생을 마쳤다. 이침이 세상을 떠나자 가장 절친하였던 벗 權近은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자네와 친분이 오래 깊었으니  
 이제 30년이 넘어섰구나.  
 문한의 일을 외람되게 이어받았고  
 시관의 임무는 내가 먼저 차지하였지.  
 학문은 모두 실질을 숭상하였고  
 문장은 모두 전송할 만하였다네.  
 내 의심을 다시 물을 데 없어  
 창천을 원망하는 것만은 아니라네.  
 與子交親久 今踰三十年  
 翰垣叨繼後 試席濫居前  
 學問皆歸實 詞華摠可傳

吾疑無復質 不懟恨蒼天

권근, 〈지의정부사 문안공 이첨을 통곡하다(哭知議政府事雙梅堂李文安公詹)〉

(『陽村集』 권7)

평생에 걸쳐 우정을 나누고 함께 시를 주고받던 벗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였다. 『양촌집』의 自註에는 “공이 예문봉공이었을 때 나는 검열이었고, 내가 지공거였을 때 이공은 동지공거였다(公爲藝文供奉, 予爲檢閱, 及予知貢, 李公爲同知貢舉)”라 한 대로, 文翰의 일은 이첨이 권근보다 먼저 하였고, 試官의 일은 권근을 이어 맡았다. 그의 학문은 실질을 숭상하였고 문장은 길이 전승될 것이라 칭송하였다.

### 3. 쌍매당 이첨 한시의 미적 특질

우리나라 한시는 고려 중기에 蘇軾을 중심으로 한 宋詩가 수용된 이래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송시가 주도적인 흐름을 장식했다. 송시풍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이 특히 蘇軾에 있었는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든 15세기 무렵에는 소식 일색에서 벗어나 黃庭堅과 陳師道를 중심으로 한 江西詩風이 문단의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그 후 16세기 후반부터 당풍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 17세기 전반에는 당풍 일색으로 시단이 변화한다.

소식과 황정건을 주로 하는 고려 말 조선 초기 한시단에서 당시를 배우겠다는 움직임은 미미하였다. 唐代的 詩聖 杜甫는 문단의 풍상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시학의 모범이 되었기에, 고려 말 李穡과 같은 대가들도 두보의 시에 능하였고, 조선 초기의 대가들 역시 두보의 시에 결코 어둡지 않았다. 그러나 두보의 시는 낭만과 흥취를 주로 하는 일반적인 당풍과는 거리가 있어 오히려 송시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송시가 주도한 14세기를 전후한 시기, 이첨과 鄭以僞 등이 외롭게 당풍을 구가하였다는 사실에 한시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들의 공이 있었기에 이후 16세기 李胄, 兪好仁, 申從濩, 姜渾, 申光漢, 金淨, 奇遵 등이 당시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고 16세기 후반부터 朴淳, 崔慶昌, 白光勳, 李純仁, 李達 등 당풍을 구가한 걸출한 시인이 등장해 당풍을 시단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sup>10)</sup>

이때 이침이 추구한 당풍이 무엇인가, 혹은 그와 대척점에 있는 송풍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논할 필요가 있다. 唐代의 시와 대비되는 宋代의 시는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첫째 시로써 직접적으로 정치의 得失을 논한다. 둘째 백성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셋째 憂國의 주제를 발현한 것이 특히 많아진다. 넷째 경제와 民風, 民俗 등 사회 제방면의 생활상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시와 그림, 글씨, 음악 등 예술 작품을 소재로 한 것이 많아진다. 여섯째 作法의 측면에서 송풍은 의논을 주로 하고 구법에 있어서는 산문화의 경향이 강하다.<sup>11)</sup>

이침은 당풍을 추구하였지만, 그 역시 시대적인 풍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으므로 상당수의 작품은 송풍으로 되어 있다. 먼저 이침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다음 작품부터 보기로 한다.

관청의 단청은 햇불 하나에 없어졌는데  
왜구들이 오히려 문묘는 보호할 줄 알았네.  
10년 세월 영남의 풍진 속에서  
홀로 의관을 바로잡고 素王을 뵈는다.

廡宇丹青一炬亡 頑童尙解護文坊  
十年海嶠風塵裏 獨整衣冠謁素王

이침, <진양의 난리 뒤 공자의 영정을 뵈고(晉陽亂後謁聖)>(『國朝詩刪』 권2)

『쌍매당협장집』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역대 시선집에 두루 실려 있는 명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旃州牧」에도 실려 있다. 1380년, 1381년 두

10) 『西浦漫筆』과 『芝峯類說』 등에서 이러한 시사의 흐름을 적시하고 있고, 민병수, 『한국한시사』(태학사, 1996)와 정민의 『목룡문단과 석주권필』(태학사, 1999), 줄저, 『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미』(태학사, 2002) 등에서도 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11) 이상은 郭預衡 主編, 『中國古代文學史長編』(宋遼金), 北京 :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3. 48~49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필자의 앞책에서도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차례에 걸친 왜구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진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침이 진주에서 멀지 않은 하동에 유배되어 있다가 진주의 향교에 들러 이 작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을 두고 金宗直은 『청구풍아』에서 “엄연히 世教를 부지하는 뜻이 있다(儼然有扶持世教之意)”고 평가한 바 있다. 왜구들이 관아는 불태워도 향교만은 남겨두었다는 데서 학문과 유학을 숭상하지 않는 당시의 세태를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다. 고려 말 安珦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학궁에 쓰다(題學宮)」에서 “항불 밝힌 곳곳마다 부처께 기도하고, 피리소리 나팔소리 집집마다 다투어 푸닥거리하는구나. 오직 몇 칸 공자의 사당이 남아 있건만, 뜰 가득 봄풀만 우거지고 적막하게 사람은 없네(香燈處處皆祈佛, 簫管家家競祀神. 惟有數間夫子廟, 滿庭春草寂無人).”라 한 것과 나란히 읽을 만한 작품이다. 이러한 시를 ‘觀風察俗’, 즉 풍속을 살피는 시라 한다. 시인의 주관적인 감흥보다는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송풍의 특질이라 한 바 있거니와, 이 작품에서 바로 그러한 경향을 살필 수 있다.

역사 사실을 두고 의론을 펼치는 것도 송시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이침은 시인으로도 이름이 높지만 역사가로서도 주목되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침은 조선과 중국의 인물에 대하여 산문으로 자신의 역사관에 의하여 의론을 펼쳤거니와, 상대방의 한시를 통하여 역사가로서의 褒貶을 시도한 바 있다. 다음 작품이 그러한 계열의 작품 중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원래 아첨꾼은 쉽게 측근이 되는 법이라  
 그대 衛靑과 公孫弘을 보게나.  
 높은 재주로 오래 회양땅에 앞드리게 하였으니  
 당시에 사직의 신하라 누가 말하였던가.  
 諂諛從來易得親 君看大將與平津  
 高才久屈淮陽郡 孰謂當時社稷臣  
 이침, <급암(汲黯)>(『청구풍아』 권7)

급암은 漢武帝 때의 사람인데 무제에게 거리낌 없이 諫言을 올리다가 미움을 받아 淮陽郡으로 좌천되었다. 반면 당시 대장 衛靑과 平津侯 公孫弘은 아첨을 하여 무제의 총애를 받았다. 무제는 급암을 사직을 떠맡을 신하

로 여겼으면서도 회양으로 내치고 10년 동안 부르지 않아 그곳에서 죽게 하였다. 그 원통함을 위로한 작품으로, 시적인 낭만이나 흥감보다는 산문적인 구법으로 역사를 포괄하고 있어 전형적인 송시라 할 수 있다.<sup>12)</sup>

이첨은 〈讀史感遇〉류의 詠史詩를 즐겨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첨이 중국 여행에서 지은 시를 모은 「관광록」에도 〈한신의 무덤(韓信墓)〉과 〈빨래하는 아낙의 무덤(漂母墓)〉 등과 같이 중국의 역사인물을 논한 시가 여럿 있다. 이들 작품은 역사 현장을 방문하고 느낀 감회를 적었다는 점에서 懷古詩처럼 보이지만, 회고적 감상보다는 사건에 대한 의론을 위주로 하고 있어 그 역시 영사시다.<sup>13)</sup> 회고적인 낭만성이 역사 사건과 어우러진 회고시인 서는 당풍을 지향할 수 있지만,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영사시는 철저하게 송풍으로 제작된다. 당풍에 뛰어났던 이첨이지만 역사적 사건을 두고 회고적인 감상에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엄정한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송풍과 달리 당풍은 기본적으로 시인의 흥감을 중시한다. 송풍에서는 사변적으로 혹은 직설적으로 뜻과 정을 드러내거나 혹은 인생의 경험을 제시하지만 당풍에서는 시의 대상과의 합일을 추구하거나 대상 속에 감정을 이입할 때가 많다. 송풍에서는 대상의 외면을 정밀하게 묘사하지만 당풍에서는 대상에 대한 흥감을 적는다. 비교적 젊은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다음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한식날 서울에 머물러 있자니  
계절은 물처럼 흘러 집이 더욱 그림네.  
버들은 시름 속에 가지를 막 회통하고  
썸바귀는 비 온 뒤 꽃을 벌써 피웠네.  
동산에는 봄을 찾아 놀러온 이 많고  
언덕에는 묘 위로 갈가마귀 모여 있네.

12) 이첨의 〈讀史感遇〉 46수가 『쌍매당협장집』(권1)에 실려 있지만 이 작품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아 이 작품은 권3 이후의 어느 곳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3) 회고시와 영사시의 특징은 필자의 앞책, 「成俔 擬古詩의 형식미와 주제 표출 양상」에서 다룬 바 있다.

풍경은 새로워지는데 사람은 늙어가니  
 眞을 찾아 어느 곳에서 단약을 달일까?  
 今年寒食滯京華 節序如流苦憶家  
 楊柳愁邊初弄線 荼蘼雨後已生花  
 尋春院落多遊騎 上墓郊原集亂鴉  
 物色漸新人漸老 慕眞何處鍊丹砂  
 이침, 〈한식날(寒食)〉(『쌍매당협장집』 권1)

역대 시선집에 모두 선발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 허균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작품에 비하여 이 작품만이 당풍이 있다(獨有唐韻)고 고평한 바 있다. 경물이 감정에 어우러진 것을 두고 이른 말이다. 특히 2연에서 버들이 축축 늘어진 것에 자신의 '시름(愁)'을 투영하였거니와, 3연에서 남들은 즐겁게 봄을 즐기지만, 갈가마귀 모인 스산한 무덤의 풍경처럼 시인의 마음을 어둡게 그려놓은 것이다. 봄 풍광은 점점 아름다워지는데 자신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대비시킨 것도 경물과 감정이 잘 어우러진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직접 감정을 토로하여야 흥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시인의 탄식 자체가 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냥 경물의 모습을 그린 듯하지만 그 안에 시인의 흥이 투영되어 있어야 좋은 작품이다.

집 뒤에는 뽕잎이 보드라운데  
 서쪽 밭에 부추가 새로 돋았네.  
 연못에는 봄물이 그득하니  
 어린 아이 배를 저어오네.  
 舍後桑枝嫩 畦西薤葉抽  
 陂塘春水滿 雉子解撐舟  
 이침 〈절로 편안하여(自適)〉(『동문선』 권19)

『쌍매당협장집』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중국에 알려져 淸 朱彝尊의 『明詩綜』에까지 실려 있는 명편이다. 洪萬宗은 『小華詩評』에서 “당인의 시에 어찌 부족하겠는가(何減唐人)”라 하였고, 『海東雜錄』에도 한적하고 자득한 뜻이 많이 있다고 고평하였다. 이 작품은 한 편의 그림과 같다. 당풍의 시는 흥

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인의 감정을 억제하고 경물만을 제시한다. 여기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봄비가 내렸다. 봄비를 맞아 파란 뽕잎이 부드럽다. 또 부추가 파랗게 자라나고 있다. 겨우내 얼었던 개울물이 졸졸 소리내면서 못으로 흘러들어와 파란빛을 뿜낸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누구나 봄풍광을 즐기려 아외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아이가 이러한 시인의 마음을 알아 어느 새 배를 준비해놓았다. 굳이 배를 타고 봄풍광을 즐기겠다는 뜻을 말할 필요가 없다. 감정이 절제됨으로써 오히려 시인이 본 봄 풍광과 그에 대한 흥취가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당풍에서 추구하는 흥감이다. 당풍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맑은 경물을 제시하기 때문에 작품 속의 경물 묘사가 매우 회화적인 심상을 띠게 된다. 당시를 두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詩中有畫)'라 한 것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도 뛰어난 시는 아름다운 그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도 함께 울리게 한다.

신선의 패옥 소리 재결랑재결랑 울리며  
 높은 다락에 올라서 푸른 창을 여노라.  
 밤 들어 다시 타는 유수곡에  
 커다란 밝은 달은 가을 강에 지네.  
 神仙腰佩玉攸攸 來上高樓掛碧窓  
 入夜更彈流水曲 一輪明月下秋江  
 이침 <밤에 함벽루를 지나다 거문고를 타는 소리를 듣고(夜過涵碧樓聞彈琴)>  
 (『국조시산』 권3)

역대 시선집에 빠짐없이 실려 있거니와, 이침의 작품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sup>14)</sup> 아름다운 정자에 오르니 절로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맑은 패옥소리로 처리하여 仙趣를 강하게 하였고, 다시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비파소리와 보름달이 지는 모습을 그려 넣어 더욱 맑은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청각과 시각을 병치한 것이 더욱 긴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1구의 청각적 심상, 2구의 시각적 심상, 다시 3구의 청각적 심상,

14) 제목의 '함벽루'는 '寒碧樓'로 되어 있는 데도 많다. 함벽루는 淸風 客館 동쪽에 있던 누각이고, 함벽루는 경주의 倚風樓 근처에 있던 누각이다. 하동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추정하여, 경주의 함벽루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4구의 시각적 심상이 교차되어 더욱 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시상이 전환되는 3구에서는 ‘入夜’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읽을 수 있게 한 다음, ‘更’이라는 글자를 통하여 1구의 ‘玉縱橫’이 연결될 수 있게 하였다. 신선의 풍기를 느끼게 하는 패옥 소리에다가 다시 맑은 <유수곡>이 들려오니 더욱 기분이 맑아지더라는 뜻이다.

이 작품은 패옥을 차고 높은 다락에 올라 맑은 달빛 아래 악기를 타는 시인의 모습이 작품의 내부에 그림으로 형용되고 있어, 전술한 대로 작품 속에 시인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당풍의 특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맑은 패옥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처량한 <유수곡>이 멀리 퍼져나가는 소리의 울림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당풍은 말은 끝났지만 여운이 남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15)</sup> 허균은 『성수시화』에서 이 작품과 정이오의 “2월이 가고 3월이 오려하니, 1년의 봄빛이 گوش에 돌아가네. 천금을 주고도 좋은 계절을 사들 수 없으니, 술 익은 누구 집에 꽃이 정히 피었나(二月將闌三月來, 一年春色夢中回. 千金尙未買佳節, 酒熟誰家花正開).”라 한 작품과 함께 조선 초기 당풍을 가장 잘 구현한 작품으로 위의 시를 들고,<sup>16)</sup> 또 『국조시산』에서 “당인의 우아한 격이대有唐人雅格”라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이침의 시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림처럼 경물을 묘사하여 넉넉히 당시의 권역에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침의 시는 기본적으로는 ‘景’보다 ‘情’이 우세하다. 그리고 그 정은 한편으로 한적하면서도 한편으로 화려하게 묘사된다.

평소 뜻한 바 이미 다 글렀으니  
 게으름이 열 배나 더한들 어떠랴?  
 낮잠에서 깨어보니 꽃 그림자 옮겼는데  
 잠깐 아이 데리고 새로 핀 연꽃을 보네.

15) 즐고, 「조선 전기 한시의 당풍과 송풍」(『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16) “國初之業, 鄭郊隱·李雙梅最善. 鄭之‘二月將闌三月來, 一年春色夢中回. 千金尙未買佳節, 酒熟誰家花正開.’之作, 不減唐人精處. 李之‘神仙腰佩玉縱橫, 來上高樓掛碧窓. 入夜更彈流水曲, 一輪明月下秋江.’之作, 亦楚楚有趣.”(『惺叟詩話』)

平生志願已蹉跎 爭奈疎慵十倍多  
 午枕覺來花影轉 暫携稚子看新荷  
 이침, 〈매우 게을러져(慵甚)〉(『국조시산』 권3)

이 역시 역대의 시선집에 두루 실려 인구에 널리 회자된 대표작이다. 『쌍매당협장집』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년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허균이 『국조시산』에서 “한가하고 여유가 있어 절로 맛이 있다(閑遠有味)”라 평한 작품이다. 낮잠에서 깨어나 꽃을 보는 한가함과 여유로움은 각박한 시인의 것이 아니라 윤기 있는 館閣의 특징이다. 관각시는 ‘풍성하고 화려함[富麗]’을 특징으로 한다.<sup>17)</sup> 15세기 말의 대표적인 관각문인 成俔의 〈비에 묶여, 청주의 동헌에 쓰다(滯雨題淸州東軒)〉(『국조시산』 권2)에서 “병풍 속에 베개 높이고 비단 휘장으로 가리니, 별원에 인적 없고 거문고 소리 벌써 끊겼네. 상쾌한 기운이 발에 가득해 막 잠에서 깨니, 온 뜰에 내린 가랑비에 장미가 젖어 있네.(畫屏高枕掩羅幃, 別院無人瑟已希. 爽氣滿簾新睡覺, 一庭微雨濕薔薇.)”라 한 것과 비교해보면 그 정조의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이침이 노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이처럼 ‘경’보다 ‘정’이 우세하고, 그 정은 관각의 여유와 한적함이 화려하게 묘사되는 특징을 지닌다. 생애와 겹들여 살핀 앞장에서 이침의 시가 맑음과 고음을 지향하였다는 것을 말한 바 있다.

서른여섯 궁궐마다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늘진 한낮 창가에서 궁녀의 꿈이 깨었네.  
 영롱하게 재잘대는 소리 시름 속에 들어보니  
 사랑받기 바라는 규중 여인 마음이라.  
 三十六宮宮樹深 蛾眉夢覺午窓陰  
 玲瓏百轉凝愁聽 盡是香閨望幸心  
 이침, 〈찌끄리 소리를 듣고(聞鶯)〉(『국조시산』 권3)

이 작품 역시 역대의 시선집에 두루 실려 있다. 三十六宮은 西漢 때 長安에 있던 別宮의 수가 36개였던 데서 후대에는 제왕의 궁전을 뜻하게 되었

17) 줄고,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전개와 문예미」(『국문학연구』 8호, 국문학회, 2002).

다. 깊은 궁궐에서 낮잠에서 깨어 영롱하게 재잘대는 피꼬리의 소리를 들어 보니 모두가 사랑에 굶주린 여인의 마음으로 들리더라는 것이다. 杜牧의 〈달(月)〉에서 “서른여섯 궁궐에 가을이 깊은데, 소양궁은 노래 끊어져 매우 으스스하구나. 오직 진황후만 짝하여, 장문궁 바라보며 행여나 임 오실까 비추어주네(三十六宮秋夜深, 昭陽歌斷信沈沈. 唯應獨伴陳皇后, 照見長門望幸心.)”라 한 것과 정조가 매우 흡사하다. 이 작품은 제목을 ‘聞鶯’이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시를 宮體, 혹은 宮詞라 한다. 궁체시는 당나라의 王昌齡과 王建이 특히 능하였던 시체로, 후대 당풍을 지향한 문인들이 즐겨 모의하던 양식이다. 이침의 이 작품 역시 艷麗한 당대의 궁체를 잘 배운 것이라 하겠다. 이 작품 역시 ‘경’보다 ‘정’을 내세우고 또 그 정이 화려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본 〈중양절 후에 안렴사 김공과 더불어 삼일포에 배를 띄우고(重九後與廉使金公泛舟遊於三日浦)〉가 두목의 시에서 나왔음을 본 바 있으니, 이침이 두목의 고음과 맑음을 지향했다고 하겠다.

이침의 한시는 관각에서의 한적한 정을 화려하게 그려내는 한편, 강건한 盛唐의 풍기를 맛보게 하는 작품도 상당수 있다. 대기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미감의 작품을 생산하는 법이다. 불우하게 조정으로부터 버림받아 변경에 머물면 강개한 정을 토로하고, 조정에 들어와 화려한 대궐에 머물게 되면 절로 나른함과 화려함을 바탕으로 하는 관각의 시를 짓게 되며, 험난한 지세가 이어지는 변방의 산천을 바라보면 기상이 웅혼한 작품도 짓는다. 웅장한 대자연을 마주하게 된 중국 여행은 이침의 시를 절로 웅혼하게 하였다. 다음은 1400년 중국으로 사신가는 길에 淸州에서 쓴 작품이다.

오랜 객지 생활에 생각이 많은데  
봄이 오자 더욱 망연자실해지네.  
영험 있는 사당에 향을 사르고  
효렴의 배에서 불을 빌리네.  
기러기는 삼천리를 건너왔는데  
봉새는 구만리를 훨훨 날아오르네.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가  
얼른하게 꽃 앞에서 취해볼거나.  
久客饒情緒 春來更惘然

焚香靈應廟 乞火孝廉船  
 雁度三千里 鷗鷺九萬天  
 幾時還故國 爛熳醉花前  
 이첨, <등주에서(登州)>(『국조시산』 권4)

이 작품 역시 역대의 시선집에 빠짐없이 수록된 이첨의 대표작이다.<sup>18)</sup> 등주는 지금의 山東城 蓬萊縣으로, 발해만과 근접한 곳인데 당시 물길로 발해 연안을 따라 이곳에 이르렀다. 첫연에서 그렇지 않아도 오랜 객지 생활에 근심이 이는데, 봄이 되어 마음이 더욱 어수선하다고 하였다. ‘구객’이라 하여 ‘기’을 나란히 두고 ‘춘래’에서 유성을 받침을 나란히 두어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반복적인 느낌이 좋다. 허균은 『국조시산』에서 이 구절을 평하여 ‘당나라 시인의 아름다운 음운[唐人稔韻]이 있다고 평하였다.

두 번째 연에서 영험이 있는 사당은 곧 蘇軾의 <등주의 해시(登州海市)>에 나오는 海神 廣德王의 사당을 말하는 듯하다. 『청구풍아』의 주석에 따르면 천비의 사당(天妃廟)이라 하였다. 南海女神의 이름이 靈惠夫人인데, 天妃 또는 天后로 불린다. 晋 張憑이 孝廉으로 천거되자, 스스로 재주를 자부하여 배를 타고 丹陽尹인 劉惔을 찾아갔다. 유담이 그와 종일 청담을 즐기다가, 그가 돌아간 뒤 사람을 시켜 그의 배를 찾게 하고서, 함께 簡文帝에게 나아갔다는 고사가 있어 孝廉船이라 한 것이다. 『쌍매당협장집』의 주석에 “감생이 향사가 되어 사문도에서 함께 묵었다(監生爲香使, 同泊沙門島)”라는 주가 달려 있다. 감생은 國子監에서 수학하는 학생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국가 감의 학생이 배를 타고 왔기에 ‘효렴선’이라 한 것이다. 무사히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하였기에 이첨은 사당에 들어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맞으러 나온 학생의 배에서 불을 빌려 밥을 해먹었다고 한 것이다. 이국에서의 체험을 이렇게 말하였다.

이어 세 번째 연에서는 감정을 토로하였다. ‘三千里’라 한 것은 조선에서 등주까지의 거리를 이른 것이다. 『청구풍아』의 주에 따르면 정확히 3,200리

18) 『쌍매당협장집』에는 제목이 <다시 짓는데 등주에서의 운을 쓴다(又題用登州韻)>로 되어 있고, ‘饒’가 ‘繞’로, ‘春來’가 ‘當春’으로, ‘焚’이 ‘分’으로, ‘鷗’이 ‘襄’으로 되어 있어 글자의 출입이 심하지만 시의 뜻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 한다. 먼 여정을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중국까지 멀리 오게 되었다는 말이다. 봉새가 9만 리 장천을 날아오른다는 것은 『莊子』 「逍遙遊」에 나오는 말로 봉새는 南冥으로 날아갈 때 한 번 차고 오르면 9만 리를 난다는 말을 빌려 왔다. 『청구풍아』의 주석에 중국에 조회하러 가는 것이 봉새가 9만 리 날아오르는 것에 비유한 것이라 하였다. 새로 중원의 주인이 된 명나라의 문명을 보게 된 '관광'의 기쁨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다시 감정을 꺾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아직 멀기에 고향생각을 하면서 술을 마신다고 한 것이다. 봄이 되어 꽃이 붉고 술을 마셔 얼굴이 붉어졌으니, 온통 붉은 빛이다. 3연과 함께 호탕한 이침의 기상을 엿보게 해준다. 다음 작품 역시 盛唐의 풍기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푸른 물결 위 좁쌀 같은 배에  
한들한들 이 몸을 맡겼네.  
초 땅의 산은 멀리 나그네를 보내고  
회수의 달은 가까이 사람을 따라온다.  
쇠한 살쩍은 온통 흰 눈이 되었는데  
나그네의 옷은 쉬 티끌에 물드는구나.  
어떻게 이 오랜 여행을 견딜까?  
물가의 풀에서 물래 봄이 온 것 알겠네.

一粟滄波上 飄然任此身  
楚山遙送客 淮月近隨人  
衰鬢渾成雪 征衣易染塵  
那堪久行役 汀草暗知春

이침, 〈배로 목양 동양관에 이르러(舟行至沐陽潼陽關)〉(『국조시산』 권5)

『동문선』, 『청구풍아』, 『국조시산』에 실려 있다.<sup>19)</sup> 沐陽의 潼陽關은 오늘날 江蘇省 沐陽縣의 남쪽에 있는 변방의 요새다. 사람이 한 몸으로 드넓은 천지 사이에 사는 것이 마치 넓은 창해에 떠 있는 좁쌀 한 알과 같다는 뜻에서 蘇軾이 〈赤壁賦〉에서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 한 바 있다. 여기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그렇다는 말이다. 2연은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19) 『雙梅堂篋藏集』에는 제7구가 '那堪行役久'로, '汀草'가 '幽草'로 되어 있지만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

풍광을 그렸다. 남쪽으로 이어진 산들이 점차 멀어지고 내륙쪽으로 회수의 물줄기를 따라 달이 환하게 다가온다고 하였다. ‘客’과 ‘人’은 모두 자신을 가리킨다. 풍광을 바라보는 자신조차 그림의 일부가 되었다. 허균은 『국조시산』에서 “매우 좋다. 盛唐 시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極好句是盛唐人句)”라 하였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늙은이라 머리가 허연데 오랜 객지 생활에 옷은 먼지로 덮였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고운 풀들이 고달픈 여행을 위로해준다 하여, 맑게 시를 맺었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이침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권근이 輓詞에서 지적한 대로 엄정한 역사의식을 견지하고 실질적인 학문을 추구하였으며, 맑으면서도 고운 시를 지어 후세에 학자와 시인으로서 그 이름을 길이 드리웠다. 다만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시가 일실되어 ‘온 술(溫酒)’의 고기를 다 맛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의 문집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온 세상을 울리면서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의 시를 후세에 그리워하리라는 것을 짐작이나 한 것처럼 이침은 이렇게 노래한 바 있다.

예전 강을 건너려 하니 탁한 물결이 넘실거리더니  
 이제 강을 건너려 하니 층층 얼음이 빼곡하구나.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은 내 고운 노래를 그리워하여  
 강가에 우두커니 서 있어 내 마음을 실로 위로해주네.  
 昔欲濟江兮濁浪參差 今將濟江兮層水陸離  
 所謂伊人兮懷我好音 沿江佇立兮實勞我心  
 이침, 〈강을 건너는 노래(濟江辭)〉(『大東詩林』 권36)<sup>20)</sup>

20) 이 작품은 『大東詩林』에 실려 있는 것으로, 아직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다. 『대동시림』에만 실려 있는 또다른 작품으로는 〈雲霏霏辭懷林晦夫〉, 〈秋風辭懷金仲父〉, 〈讀易感興詩〉(8수), 〈用古人句作江湖四詠〉(4수) 등이 있다. 『대동시림』도 잔본 몇 권만이 전하므로, 『대동시림』이 더 발견되면 이침의 새로운 시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        |
|------------|--------|
| 『攷事撮要』     | 『國朝詩刪』 |
| 『大東詩林』(잔본) | 『大東詩選』 |
| 『東國輿地勝覽』   | 『東文選』  |
| 『東人詩話』     | 『西浦漫筆』 |
| 『惺叟詩話』     | 『小華詩評』 |
| 『松堂集』      | 『陽村集』  |
| 『芝峯類說』     | 『惕若齋集』 |
| 『靑丘風雅』     | 『圃隱集』  |
| 『海東雜錄』     | 『壺谷詩話』 |
| 『明詩綜』      |        |

『조선왕조실록』(CD-Rom)

강석중, 「쌍매당 이침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2, 1996.

郭預衡 主編, 『中國古代文學史長編』(宋遼金), 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3.

김동주(역)『국역쌍매당문집』, 민창문화사, 1999.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이건영, 「쌍매당 이침의 시문학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李仁榮, 『淸芬室書目』, 寶蓮閣, 1968.

이종묵, 「한국 문인 연보 연구 - 조선 전기 인물 연보를 중심으로」, 『장서각』 5  
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_\_\_\_\_,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전개와 문예미」, 『국문학연구』 8호, 국문학회,  
2002.

\_\_\_\_\_, 『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정구복, 「쌍매당 선생 문집 해제」, 『국역쌍매당문집』, 민창문화사, 1999.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권필』, 태학사, 1999.